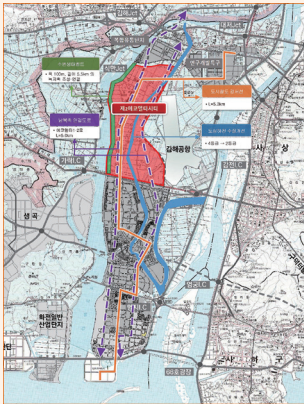


부산시, '제2에코델타시티' 통해 새로운 도시 조성 모델 제시

부산광역시 도시균형개발과(에코델타시티팀)
2022.4.5.



제2에코델타시티 기반시설 등 설치계획(안)



제2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업무협약(MOU)
출처: 부산광역시, (2022). 제2에코델타시티, 도시철도·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먼저 만든다, 4월 5일 보도자료.

부산시가 강서구 김해공항 서측 일원 약 320만 평에 조성할 예정인 제2에코델타시티에 도시철도, 도로, 공원·녹지 등 기반시설을 우선 구축하기로 하였다. 통상적으로 도시개발은 단지나 주택을 먼저 조성하지만, 제2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은 신교통(트램)·도로·수질개선·공원녹지 등 교통과 환경 부문 시설을 앞서 공사한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는 “이 지역의 남쪽에 위치한 명지국제신도시, 부산 에코델타시티와 북쪽의 부산연구개발특구의 인프라를 조기에 연계 및 구축해 강서구 전체를 연담도시 구조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로써 도시의 환경가치와 공공시설 서비스를 제고하고 교통과 환경을 우선하는 친환경 수변도시의 강점을 부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번 사업의 의의를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신교통인 도시철도 강서선(트램) 시설을 우선 조성해 15분 생활권 도시를 실현하고, 도시철도 3호선과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하단~녹산선을 조기에 연결하는 한편 제2에코델타시티를 남북으로 잇는 광역도로도 조기 건설해 7개의 동서축과 연결하는 초광역 연결망을 이룬 시일 내에 완성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부지 내 도심하천인 평강천과 맥도강에 낙동강 본류수(2등급)를 유입시켜 물순환을 강화해 수질등급을 4등급에서 2등급으로 개선하고, 폭 100m에 길이 5.5km의 서낙동강변 녹지축을 조성·연결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친환경 수변도시를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기적으로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제도, 주민과 함께하는 리빙랩, 인공지능(AI) 기반의 3차원 설계기법 등도 도입해 제2에코델타시티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디지털 트윈 도시로 구현할 계획이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산시는 한국수자원공사, 부산도시공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입주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단지를 활성화해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도 내놓았다.